

광주극장 DJ와 함께 '영화가 빛나는 밤에'

1930 양림쌀롱 다방과 카페, 모던보이 아지트

문화가 있는 날

내일 다양한 행사

시네마천국 '필름정거장'
광주극장·영화의 집
밴드 공연·부채 만들기 등

ACC 브런치콘서트
피아니스트 박종훈 공연

시립미술관
조방원 그림 속에 비친 선율

목포·순천·담양·강진
주말에도 '문화가 있는 날'



연극 '모던걸 다이어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1930 양림쌀롱' 행사 모습.

'문화가 있는 날' 제대로 즐겨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7월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행사가 26일 일제히 펼쳐진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평일에 문화 체험을 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말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거점 특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1930 양림쌀롱'은 광주의 근대(1930년대)를 소재로 양림동 마을 전역을 무대삼아 펼쳐지는 문화예술 행사다.

7월 행사에서는 '오빠는 풍각쟁이' 등 근대 대중문화 관련 책을 출간하고 '장유정이 부르는 모던조선' 음반을 낸 장유정 교수가 '다방과 카페, 모던보이의 아지트'를 주제로 특강한다. 강의 중간 장 교수가 직접 들려주는 1930년 재즈송 공연도 준비돼 있다.

또 하우스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쌀롱콘서트', 양림동을 야간에 둘러볼 수 있는 야간투어프로그램 '양림달빛투어', 연극 '1930 모던걸다이어리', 다양한 먹거리와 수공예품, 엔틱 소품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양림쌀롱마켓', 근대 의상, 소품을 체험해볼 수 있는 '모던 의상 대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행사 당일 양림오거리 매표소에서 '양림쌀롱 탐블러'(1인 5000원)를 구매하면 제휴 카페의 커피와 음료를 최대 3잔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문의 070-4239-5040.

문화콘텐츠 그룹 '잇다'가 진행하는 '시네



박종훈

조방원

마천국 '필름정거장'은 26일 광주극장과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번 주제는 '가족과 함께 광주극장으로 떠나는 여름휴가'다. 광주극장 옛 매표소에서의 티켓 오픈을 시작으로 전시, 체험, 영화상영,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관객들의 사연을 받아 진행되는 DJ 프로그램 '영화가 빛나는 밤에'가 광주극장 1층에서 열리며, '극장전'에서는 소울팝 밴드 '스왈로우'의 버스킹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또 '여름공방'에서는 부채와 캔들 등 여름이템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광주극장 1.5층에서는 영화특수촬영기법을 통해 영화 '헤드워'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포토존인 '헤드워 포토존'을 체험할 수 있다. 그밖에 오후 7시30분부터 광주극장 상영

관에서는 록 뮤지컬 영화 '헤드워'이, 영화의 집에서는 애니메이션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이 상영된다. 영화 상영 전에는 '그림책 작가 무릎과 함께 떠나는 그림책 여행'을 통해 영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의 원작동화 '셀레스틴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영화상영이 끝난 후 '뮤지시네마천국'에서는 3인조 혼성밴드 '이 안'과 클래식 앙상블 '아엘 7중'의 공연이 펼쳐진다. 무료 관람. 문의 062-366-189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진행하는 'ACC 브런치콘서트'의 7월 공연은 '피아니스트 박종훈의 크로스오버 음악이야기'다. 오는 26일 오전 11시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박종훈이 반도네오니스트 진선, 첼리스트 예슬과 함께 '리베르 탱고' 등 탱고 특유의 슬슬하면서도 매혹적인 선율을 색다르게 선보인다. 공연 후에는 커피와 샌드위치도 제공한다. 관람료 전석 2만원. 1899-5566.

광주시립미술관은 현재 1, 2전시실에서 진행중인 아산 조방원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오후 7시 '아산 조방원 그림 속에 비친 선율' 연주를 진행한다.

아산의 예술정신과 회화 세계를 클래식 음악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로 피아니스트 조현영과 첼리스트 윤소희가 참여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그리그의 '페르귄트 조

곡', 베토벤의 '폭풍', '넬라 판타지아' 등이 다. 전시·공연 무료 관람. 문의 062-613-7142.

유·스퀘어는 26일 오후 6시15분 유·스퀘어 실내광장에서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풍당 클래식'과 함께한다. '풍당 클래식'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외 각종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성악 앙상블 팀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 '산쵸', '우정의 노래' 등을 선사한다.

유·스퀘어는 또 응모함에 담긴 명함을 추천해 금호아트홀과 동산아트홀에서 진행하는 공연 초대권을 증정하는 명함이벤트도 실시한다. 문의 062-360-8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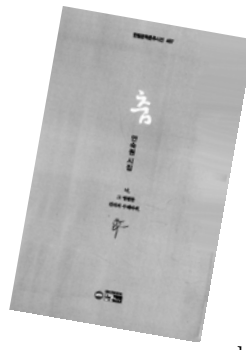
한편 이번달부터는 주말에도 문화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

25~29일 목포, 순천, 담양, 강진에서는 지역 특화프로그램 '야간작업'이 여름밤을 시원하게 식혀준다. 28일 순천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는 야외공간에서 펼쳐지는 '물총싸움 육전대첩', 맥주와 함께하는 야외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29일 담양에서는 '문화피서'를 주제로 중앙공원과 담빛길 일대를 파라솔과 에어매트, 불꽃장 등을 활용해 휴가지로 꾸민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등단 15년만에 첫 시집 펴내

다형시낭송회 안숙원 시인 '춤'



광주문인협회와 다형시낭송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숙원 시인이 첫 시집 '춤'(한림·사진)을 발간했다.

모두 90여 편의 작품이 수록된 작품집에는 '수선화', '동그라미', '넋', '달', '나그네' 등 다양한 소재가 형상화돼 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소재 외에도 '복소리', '꽃밭', '실존', '시간' 등 다소 무거운 소재들도 특유의 어조로 이미지화돼 있다.

등단 후 15년 만에 펴낸 시집인 만큼 오랜 시자의 노고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대부분 시들은 짧고 담백하다. 수사보다는 특유의 어조와 리듬으로 시를 형상화한다. "너./ 그 영원한/ 전리의 수레바퀴" 표제시 '춤'은 3절로 이루어져 있다. 가급적 시어를 축약하고 생략해서 여운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안 시인은 서문에서 "하루 하루 '시'로 채워진 일상이 감사하다"며 두뼘두뼘 장작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한편 안 시인은 2003년 '한국시'로 등단했으며 한국문인협회, 전남문인협회, 광주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비슷비슷하게 길을 잃다

구례 출신 김광수 시인 첫 시집 발간



구례 출신 김광수 시인이 첫 시집 '비슷비슷하게 길을 잃다'(문학과경계·사진)를 발간했다.

2002년 '문학과경계'로 등단한 지 15년 만에 펴낸 작품집에는 모두 42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시편 하나하나의 모종의 연혁과 히스토리를 강렬하게 품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대부분의 작품은 거침이 없으면서도 배면에 슬픔이 투영돼 있다.

국가정보 기관에서 일한 시인의 이력도 심상치 않다. 여기에 젊은 나이에 배우자를 잃은 깊은 상흔까지 더해져 시편에는 흔적과 기억에 대한 심상이 적잖이 배어 있다.

그 때문인지 죽음에 대한 통찰이 곳곳에서 튀어나온다. "죽음이란 망망대해 만경창파에서 서늘 그믐날 물 거품 하나 터트리지는 것"(풍산 다투어)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아마 시인은 토굴에서 기르던 풍산개의 죽음을 통해 고독한 수행자의 삶을 전하려 했던 것 같다. "졸마달라 한통네 사는 시인의 옆동네 사는 시인의 시와 비슷비슷한 시를 읽다말다 버스 승강장을 지나쳐 날마다 비슷비슷한 여름 속에서 길을 잃었다 비슷비슷한 아파트 사이사이 보도블록, 비슷비슷한 와그너 치킨 닭다리·닭다리..."

표제시 '비슷비슷하게 길을 잃다'는 오늘의 시류를 시니컬하게 이미지화한다. 물개성적이고 파편적인 현대인의 삶이 거리의 모습에 투영돼 있다.

김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거지처럼 살면 거지고, 꽃처럼 살면 꽃이다"라는 말로 출간의 의미를 드러낸다.

한편 김 시인은 2005년 동아일보 신인소설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순천에서 거주하며 집필에 매진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09시 오픈! 22시 마감!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공주시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한우가격의 2/3

와규 갈비살 20,000원
와규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와규전문점
-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